

연극 '땅 끝에서 보면 바다가 보인다' 공연

2007포천시 무대예술진흥사업 12월16일 오후2시, 7시 공연

"땅끝이란 세상의 끝에서 외치는 그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겨울같은 삶속에서 향기내는 꽃과 같은 우리네 서민들의 재미있고 훈훈한 사람이 아닐까입니다"

포천예총(회장 이희용)이 만든 연극작품 '땅 끝에서 보면 바다가 보인다' 공연이 오는 12월16일 일요일 오후2시와 오후7시 두차례 포천문화아트홀 대극장 무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작품은 2007 포천시 무대예술진흥사업으로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문화원, 포천시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포천지부협의회, 포천신문, 포천문화예술봉사단, 포천시시민안전봉사대, 여성단체협의회 포천시지회, 포천시재향군인회, 포천경찰서녹색어머니회, 포천시장애인연합회등이 후원한다.

이번 연극의 연출을 맡은 이희용 포천예총 회장은 "그동안의 아픔과 어린 마음들을 벗어던지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이 담긴 이야기를 무대공연으로 만들어 시민여러분의 진정한 감동이 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포천시의 지원으로 마련했다"며 "이번 작품은 감동과 해학 그리고 익

살이 잘 버무려져 관객에게 웃음을 심어주고,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저마다의 애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무료공연으로 연극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람이 가능하며 공연시간 30분전에 좌석배정을 받아야 한다. (공연문의 031-531-8181)

이희용 포천예총 회장의 연출로 서민들의 가슴 저미는 이야기로 만들어진 이번 공연의 배우와 스태프는 다음과 같다.

▶반배-이장희 ▶준호-김용만 ▶상우-임태순 ▶진술-신숙이 ▶만두-김승덕 ▶코쟁이-우경환 ▶참치-이은학 ▶손님1-정지두 ▶손님2-이창덕 ▶작 김태수 ▶연출 이희용 ▶조연출 이규연 ▶무대감독 한대관 ▶미술감독 오윤균 ▶무대디자인 손혜진 ▶무대디자인보 최우남, 김재경, 안소영 ▶조명디자인 남중우 ▶조형물과 고아라 ▶음향디자인,오퍼 박경미 ▶무대제작 이경원, 정기준, 조백기 ▶소품디자인,제작 김민정, 나현정, 김정하 ▶분장 황민혜 ▶진행 임갑연,김선진 ▶안대 가수경, 조윤경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예총이 만든 연극작품 '땅 끝에서 보면 바다가 보인다' 공연이 오는 12월16일 일요일 오후2시와 오후7시 두차례 포천문화아트홀 대극장 무대에서 개최된다.

韓國의 선비정신 · 85

행주대첩과 권율(權慄) 장군 (3)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권율(權慄)은 난초(亂初)에 공주목사로서 군사를 일으켜 싸웠는데, 진산 배고개에서 대적하여 드디어 전라도 순찰사가 되었으며, 이어서 군사를 이끌고 북상하여 수원 독산성에 올라, 명군과 계책을 세워 서울을 회복하려다가, 이어숨이 벽제관 싸움에서 패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강을 건너 행주산성으로 이거하였다.

이 행주산성은 강안에 우뚝 솟아있는 고산(孤山)으로, 한쪽은 강에 직면하고, 그 외에는 광박한 평야로 둘러싸여, 동쪽은 준협하고 서북쪽은 완만하여 입구를 이루고 있었다.

이 때 병사 선거이(宣居怡)는 군사 4천여 명을 이끌고 금천(金川)에서 응원하게 되고, 참의사 김천일은 강화에서 해안으로 출진하고, 충청감사 허항(許項)은 통진에서 응원을 하기로 하였다.

권율의 친솔군은 만여 명이 불과하였으나 도망갈 길이 없는 험지에 옮겨하였으므로 결사의 용기를 품고 있었다.

서울의 왜군은 벽제관 싸움에서 이미 대승을 거둔 터라 교만해졌고, 또 군세의 성태함을 믿고 있는 터였으므로, 일거에 이산성을 빼앗고자, 2월 12일 새벽에 부대를 나누어 총병력 3만여 명으로 습격하여 왔다. 흥백기, 황금산, 귀면수형(鬼面潭形), 기타 형형색색의 괴이한 분장과 장식하고 들을 개망게 덮어오는 왜군의 모습은 장관이었고, 산성은 겹겹으로 포위되었다.

우리편 군사는 권 장군의 지휘 아래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적군이 가까이 유박할 기회를 기다려 화살과 돌을 우박같이 퍼부으며, 또 각종 총기를 발사하여 왜군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 그러나 적군은 굴지 않고 군사를 세

후 돌아갔는데, 타는 뱀새가 십리 밖에까지 뻗었다 한다.

승리한 우리편 군사들도 달려나와 그 즉시로 적군의 시체를 수습하여 수급(首級) 백 30여 두를 얻고 적군의 활과 기갑, 조총 등 7백 20점을 노획하였다.

이후 이 싸움에서 적의 대장 우구다가 히데이에, 요시가와 히로이에(吉川廣家),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 등까지도 부상을 입었고 나머지 장졸의 사상자는 부지기수요, 죽은 자만도 태반이었다 하니 이 얼마나 큰 전적이며, 또 통쾌한 승첩이 아닐 수 없었다.

권율은 전공으로 후에 도원수가 되어 재군을 통솔하고 영남에 주둔하였다.

이 무렵 이여송의 명군은 개성에서 점차 서울을 칠 기세였었고, 행주산성에서 대승한 권율과 김병원 등이 거느리는 조선군은 고강, 파주 등지에서 왜군의 보급로를 끊었으며, 이순신의 수군은 해상에서 일본 수목군의 연락을 불가능케 하여 전세는 차츰 왜군에게 불리해졌다.

게다가 사대수(查大受), 이여매(李如梅) 등 명나라 장수와 조선 대신 유성룡은 은밀히 군사를 이끌고 용진에 쌓아 둔 적의 군량 10만 석을 모두 불질러 버렸으므로 왜병들은 더욱 곤경에 빠지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유행하여 죽는 자가 부지기수였으므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서울을 버리고 남쪽으로 퇴각하였다. 이 때 이여송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였더라면 커다란 전과를 거두게 될 것을, 그는 벽제관 무렵에서 흔히 난 후로는 겁을 먹고 싸움을 피하였기 때문에 왜군은 완전히 철수하여 남쪽 해안 지대에 진을 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콜 포터(Cole Porter, 1991~1964)와 커밍아웃(Coming out)

커밍아웃(Coming out)은 'Coming out of the closet'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신이 동성애라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일'이다. 요즘 세상에 연예인들이 커밍아웃하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한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스타 마이클 잭슨, 엘튼 존, 안젤리나 졸리, 마돈나 등은 이미 커밍아웃으로 잘 알려져 있고 반지의 제왕에서 마법사 간달프 역을 한 이안 맥클레인은 남자 애인과 커플 목걸이를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도 자주 나타난다. 유명한 스타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커밍아웃하는 것이 서양에서는 흔한 일이다. 이 러한 경향은 한국에서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 홍석천이 커밍아웃 했다고 하거나, 양드레 김 등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심지어 얼마 전 서울의 중심가 종로에서는 500여명의 국내외 동성연애자들이 각양각색의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다. '퀴어문화 축제'로 명명된 이 퍼레이드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성적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자긍심을 담아 도심을 당당하게 행진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1930년대에는 미국도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던 모양이다. 당연히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는데 리처드 로저스와 팀을 이루어

1930년대 브로드웨이를 화려하게 수놓은 작사가 로렌즈 하트(Lorenz Hart, 1895~1943)는 그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1943년 죽기 전까지 알코올 중독과 동성애자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며 고통 속에서 생활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할리우드를 주름잡으며 오늘날 몇 안 되는 세계적인 대스타 반열에 올라있는 록 허드슨(Rock Hudson)도 1985년 에이즈로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동성연애자임을 잘 알리지 있지 않았다. 제임스 딘(James Dean)과 함께 열연했던 <자이언츠(Giants, 1956)>와 <무기여 잘 있거라(A Farewell to Arms, 1957)>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록 허드슨은 1960년대에 벌었던 스캔들로 인해 그의 남성편력이 미국에는 알려지지 시작했지만 그의 사인이 에이즈로 밝혀지자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세계적으로 커밍아웃에 대한 호기심도 불러일으켰다. 미국인들이 사랑한 작곡가 콜 포터(Cole Porter, 1891~1964)는 당시 다른 커밍아웃한 사람들과는 다른 평가를 받았다. 지나칠 정도로 끝없는 동성연애의 탐닉과 식을 줄 모르는 남자를 향한 애정행각을 벌여 미국 사회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대중은 로렌즈 하트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었다. 역시 미국인들이 사랑했던 작곡가 에 대한 연민적인 시선이었던 것 같다.

1930년대 콜 포터는 대표작 <

애니싱 고즈(Anything Goes, 1934)>를 비롯하여 <로잘리(Rosalie, 1937)> <브로드웨이 멜로디 1940 (Broadway Melody Of 1940, 1939)> 등 영화 속에서도 풍부한 이미지와 기교를 보여주며 미국의 대표적인 뮤지컬 작곡가로 추앙을 받았다. 1930년대에는 성공적인 작품 활동을 했지만 1940년대는 이렇다 할 명작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더욱이 1937년에 낙마사고로 다리를 다쳐 30번 이상의 다리수술을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두 사람은 다시 재결합하게 된다.

브로드웨이에서 10년이 넘게 히트작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콜 포터에게 이 작품은 예술적으로나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안겨 주었으며 그의 생애에 마지막 히트작으로 남게 되었다. 1953년에 영화화되어 또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영화화작본을 담당할 콜 포터는 영화제작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여 촬영기간 동안 촬영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유명한 안무가이며 영화감독이었던 밥 포시(Bob Fosse, 1927~1987)도 신인배우시절 호르텐시오 역으로 참여한 이 영화는 할리우드 뮤지컬의 수작으로 뽑히고 있고 국내에도 개봉되어 현재 DVD로 출시되어 있다.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콜 포터의 시대가 끝나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콜 포터(Cole Porter)는 1948년에 마지막 히트작을 만들어냈는데 세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뮤지컬화한 <키스 미 케이트(Kiss Me, Kate)>가 그것이다. 볼티모어에서 세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The Taming of the Shrew)가 공연되는 것으로 작품이 시작된다. 연극에 주연으로 발탁된 프레스리(Graham)와 릴리(Velvet)는 이 혼란 사이로 애절한 관계에 놓여 있지만 작품에 함께 참여한다. 그렇지만 릴리는 프레스리의 연이자 댄서인 로이스를 보고 화를 내며 출연을 거부한다. 하지만 프

기록되어 있다. 메밀을 영양학적으로 분석해 보자. 12~13%의 단백질과 라이신, 알기신 등의 필수 아미노산과 지방질, 철, 인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 B1, B2 등이 있고 종자와 잎, 줄기 등에 루틴, 게르세린과 비백신등의 항산화성 플라보노이드가 들어 있다. 특히, '루틴(Rutin)'은 혈관벽의 저항력을 향상시켜서 고혈압 환자나 동맥경화증이 좋다. (메밀 삶은 물)

이밖에도 모세혈관을 튼튼히 하고 잇몸 염증 제거, 임플 출혈 및 구취제거에 좋다. 허약체질이 나 비만체질 모두에게 좋다. 메밀과 무가 궁합이 맞는다. 그러나 소화기능이 약하거나 찬 사람은 섭취를 피하는게 좋고 오래 저장하면 특성이 없어진다. 대 고강 포천에도 TV전파를 타고 「맛자랑 식당」이 그 일품요리를 자랑한다. 내 고향 포천의 특산 「메밀요리」로 자랑하는 고장이 되었으며 좋겠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품' 기대 포천미협 제10회 정기회원전 12월8일 개막식

한국미술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경진)는 12월8일 오후2시 포천한시사 미술관에서 제10회 정기회원전 개막식을 갖고 오는 14일까지 전시회를 갖는다.

이날 전시회 개막식은 박운국 포천시지장, 이종효 포천시시의회위원장, 이희용 포천예총회장,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김광우 포천아시아비엔날레 대표, 조경호 포천문화원장, 그리고 이계영 사무국장 등을 비롯한 회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다"며 "회원전을 계기로 포천미협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문화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포천시에 책상산 아트벨 리가 내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곳에 예술인촌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개최한 아시아비엔날레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포천의 문화예술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듯이 포천의 미술이 포천미협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효 포천시시의회위원은 "포천 예술이 발전한 것은 박운국 포천시지장의 높은 문화마인드로 가능했다"며 "그동안 문화예술계에 쏟은 사랑과 정성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희용 포천예총회장은 "포천예총은 소속단체의 여러 가지 활동을 능동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이 관객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 사소통이 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우 포천아시아비엔날레 조직



한국미술협회 포천시지부는 12월8일 오후2시 포천문화아트홀 전시실에서 제10회 정기회원전 개막식을 갖고 오는 14일까지 전시회를 갖는다.(사진은 개막식 테이프커팅 장면)

초대 漢詩



鄭 麒 容
포천향교 전교

耆老侍宴感懷(기로서연감회)

論道彝倫敬老先(론도이륜경로선) 招宴侍宴又今年(초빈시연우금년)
도의를 세우고 윤리를 맺었기 하러면 결로부대 하여는네 노인들을 초대하여 시연하는 행사가 금년에 열리고 있네.

滿盤盛饌精誠洽(만반성찬정성합) 盈酌壽肴厚待宜(영酌壽肴厚待宜)
반반의 성찬은 정성을 다하였으며 맛있는 안주와 술진을 채워서 후한 대접을 하고 있네.

舞蹈歌謠興致溢(무도가요흥치일) 投壺競技戲遊連(투호경기희유연)
춤이와 노래까지 무르익으니 흥치가 넘치고 투호스러운 투호경기는 재미있는 놀이로 이어졌네.

桑榆窮爽歡情足(상유궁수환정족) 懿績青儒永遠傳(의적청유영원전)
오늘 외로운 늙은이들이 즐거움이 만족하니 젊은 유생들의 이름다운 행적은 오래오래 전해리라.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20)

「메밀」이야기

메밀은 단백질이 많아 영양가가 많아 독특한 맛이 있다. 메밀빵, 국수, 메밀나물 메밀묵 등의 형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메밀 막국수나 냉면이 향토 음식으로 발달하였는데 여름철에는 메밀가루를 물에 타서 차가운 얼음과 함께 레몬, 꿀 등과 곁들여 미숫가루처럼 타서 마시는 것도 좋다.

「메밀」은 마디풀과에 속하는 풀로 「한해살이」이며 「모밀」, 「메밀」이라고 부르기도 하여 「교맥(蕎麥)」이라 한다. 키는 60cm~90cm이고 줄기 속은 비어 있으며 가뭄에 강하다. 중앙아시아 북부 지역이 원산지이며 한국에는 삼국시대에 이전부터 재배되었다. 낱씨, 토질, 관계없이 아무 곳에서는 잘

자라며 파종후, 60~90일이면 수확을 할 수 있어 흉년에 매우 유용한 작물이다. 또, 영양가가 많으면서도 저장력이 강한 특성이 체질적으로 열기와 습기가 많은 사람이 메밀을 먹으면 몸 속에 쌓여있던 열기와 습기가 빠져 나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을 낼 수 있다.

또한 메밀까지도 만든 베게는 가볍고 부서지지 않으며 통풍이 잘 되어 서늘하고 습하지 않아서 열기를 식히고 풍증을 없앤다. 메밀꽃은 식당만 기근에 걸려 많이 피고 풀밭도 많으므로 풀의 생산량이 많은데 메밀꽃은 알칼칼이 고 특유한 냄새가 나며 약용으로